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30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수질환경과	담당자	• 수질보전팀장 이석동 ☎440-3706 • 담당자 손정우 ☎440-3708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불법 배출업체 찾아 땅속으로...적발시 강력 대응

- 배출업소 단속 지하 매설물 탐지 장비(GRP) 도입 시연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6일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고농도 하수 유입수 저감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하 매설물 탐지장치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난달 19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개최된 공사공단 간담회시 환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중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폐수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의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하매설물탐지장비(GRP) 도입을 위해 시연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 유입 원인을 폐수배출업체 원인으로 판단, 기존 설비 및 최종방류구 수질분석에 국한된 점검방식을 지하 5m 깊이까지 관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 불법배출관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인천시는 폐수처리시설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단속반 신설과 24시간 시스템 도입, ▲이동식 수질 측정차량 확대 보급, ▲지하 매설물 탐지 장비 도입, ▲고농도 하수 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표시제 등을 도입하여 그물망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구역 내 불법 폐수 방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관계기관 단속 협업 등을 통해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관리할 예정이다.

민경석 인천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배출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폐수 다량 및 악성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위법 행위 적발시 강력히 대응 하겠다.” 고 말했다.

< ‘21.3.26일 지하매설물탐지장비(GRP) 시연회>

